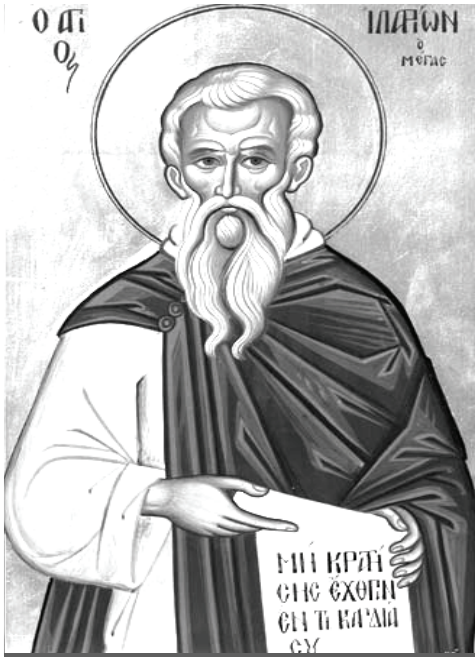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일라리온 대수사

루가 제6주일

성 일라리온 대수사, 성 필로테오스 수사

제4조,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토م 성찬예배에서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모두 가까이 와서' / 14, A 42
-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갈라디아 2,16-20 / 봉독서 295
- 복음경 : 루가 8,27-39 / 126, B 7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일라리온 대수사

우리 교회는 10월 21일을 고대의 위대한 수도사 중 한 분이신 성 일라리온(333~413)의 축일로 기념합니다.

성 일라리온은 성 대안토니오스와 동시대에 사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성 일라리온은 16세였으며 이제 막 고행 생활을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성 대 안토니오스는 그를 일컬어 '하늘의 새로운 별'이라 하셨습니다.

수도자들의 삶을 연구하다 보면 그들의 삶

은 한 번의 순교가 아니라, 온전한 삶 전체가 처절한 순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수행을 갈망했으며 기쁨으로 그 금욕적 수행의 삶을 좇았고 거룩한 덕을 드높인 후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웅적인 삶에 감탄해 마지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와 다른 어떤 행위들과 업적들을 영웅적이라 칭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하고 영웅적인 것은 육체적 정념들과 세상을 극복하고 거둔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하느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듣는 것조차도 방해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의 손길을 뻗쳐서 그의 노예로 삼아 지배하려고 계획하며 시도하고 있다.

요한 묵시록 12장 9절에서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높은 뱀인데, 이제 그 높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했듯이 이 마귀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마음대로 세상에서 활보하며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도록 유혹의 손길을 계속 뻗치고 있는 중이다.

하느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머물도록 하면서 그곳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으나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당부하셨다. 인간은 그때만 해도 악을 모르고 선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선한 상태로 있었기에 하느님과 거리낌 없이 대화도 했고 지낼 수 있었다.

인간은 본래 악을 알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을 제어하고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악을 제압할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므로 말미암아 마귀가 좋아하는 악을 알게 되어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죄에 빠져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마귀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여 그들과 같이 지옥의 동반자가 되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도 끊임없이 죄를 알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을 갖게 해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

져서 세상에 드러나게 마련이다.”(루가 8,17)

죄인은 숨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잘못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한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대하는 단순한 행위와 의미 없는 말에도 쉽게 오해하고 적대시하며 피한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마음 가운데에도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항상 하느님을 의식하고 있어서 피하려고 해도 알게 모르게 들리게 되어 괴로워하고 두려움에 살게 된다. 더 나아가 그의 두려움에 대한 원인을 알기를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또한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도 듣기를 두려워하며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의 대상인 것이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이 더 죄를 합리화하며 그의 지시에 잘 따르게끔 그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영적, 육적으로 권능을 주며 그의 수하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사랑의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항상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고통받고 있는 죄인들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다행히 부르심을 받아 그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점차적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귀는 하느님의 사랑을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셔서 마귀의 힘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또 그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마귀의 존재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더욱더 알고 그를 사랑하며 나아가갈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의 날개로 덮어주시어 온갖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영적, 육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교부들의 가르침 2

- ▷ 사막의 교부가 말했다. “모든 선한 행동을 하기 전 대개 유혹이 있거나 또는 행동을 하고 나서 유혹이 뒤따른다. 이를테면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기도, 성찬예배에 참여해서 성체성혈을 받는 것, 우리 이웃을 돕는 것 등은 언제나 악마가 하지 못하게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목표물이다.

악마는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그리고 성체와 성혈을 받지 못하게 자기의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방해한다. 그리고 만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기의 온 힘을 다해 사납게 우리와 싸우려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선한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려고 애쓴다.”

누구라도 유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혹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성 안토니오스 수도자)

- ▷ 사랑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복되다. 그(녀)는 비록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의인들이 맛보게 될 부활의 숨을 미리 쉰다.(성 이삭 시리아인)

- ▷ 당신의 기도는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첫째는 경배, 둘째는 감사, 셋째는 죄의 고백, 넷째는 구원을 위한 탄원입니다.(성 대 바실리오스)

▶ 아타나시아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10월 21일 주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훌륭한 영적 아버지로 사목 활동을 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가을 바자회

오늘 10월 21일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축제’ 바자회가 개최됩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불가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장년회 가을 야유회

지난 10월 9일(화) 한글날에 장년회 회원들은 설악산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고, 맛있는 식사와 담소를 나누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여행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바자회

11월 11일 주일 성찬예배 후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셔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기여합니다.

주간 예식

■ 10월 26일(금) 성 디미트리오스 대순교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